

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(6.28)

□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[❶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]

□ 먼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올해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, 물가상승세가 확연히 둔화되고 고용 호조도 이어져 왔으나, 경기 측면에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
○ 다만, 최근 소비자심리가 반등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개선 조짐도 일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.

□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“상저하고” 흐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지만, 여전히 경기·금융시장 등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정책을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.

❶ 먼저,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·투자 촉진 및 내수·지역경제 활성화 등 ‘경제활력 제고’에 매진하겠습니다.

❷ 둘째, 물가안정세를 확고히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·주거 부담 경감, 약자복지 등 ‘민생경제 안정’에 주력하겠습니다.

❸ 셋째, 과학기술·첨단산업 육성과 노동·교육·연금 등 3대 구조개혁, 규제혁신 등을 통해 ‘경제체질 개선’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.

❹ 넷째, 저출산·고령화, 기후위기·경제안보 이슈 등 ‘미래대비’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□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주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

[②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]

□ 다음은 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입니다.

□ 한류 열풍, 푸드테크의 발전 등에 힘입어 우리 농식품*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

* 농식품 수출액(억불) : ('18)69.2 → ('20)75.6 → ('22)88.2('18~'22, 연평균 6.2%↑)

□ 정부는 지난해 88억불이었던 농식품 수출 규모가 2027년 150억불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- ① 우선,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, 내년부터 관련 기업, 연구기관, 지역대학 등이 집적된 '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'를 조성하여 집중 육성하는 한편,
- EU 등 수출대상국의 눈높이에 맞는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올해부터 ESG 경영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겠습니다.

② 또한, 현재 11개*인 연간 1억불 이상 농식품 수출 품목이 2027년 20개까지 확대되도록

* 연초류(9.3억불), 라면(7.6), 음료(5.1), 커피(3.2), 인삼(2.7), 쌀가공식품(1.8) 등

- 수출대상국 맞춤형 유망품종을 발굴하고, 슈퍼마켓, 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망 이외에 한식당 등으로 수출망을 더욱 넓혀 나가는 동시에,
- 전통주를 걸들인 해외 한식경연대회 개최, 장류 생산의 과학화 등 전통식품의 수출산업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
③ 아울러, K-푸드 로고를 공동 활용하고, K-콘텐츠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, 스타셰프를 활용한 글로벌 미식행사 등 홍보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□ 이어서, 안전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차관님의 자세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. (농식품부 차관 모두발언)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